

1. 5월 15일 예배후에 부인회 주최로 나고야 자매의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85세의 고령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특심이 있는지 그저 감사하고 감사 할 뿐입니다.  
센겐다이에 주신 선물이지요.  
듣는 회원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주일 예배를 회원들이 집중해서 열심을 내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달아 오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추가 기도제목

1. 야스다 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2. 김 화영 자매라고 개혁파 히로시마 교회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주일성수를 몸이 피곤하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주일성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평일에 하나님과 교제는 어떤지.. 궁금하지만 온 지 얼마 안됐고 저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기도부탁드립니다.

3 마키가 매주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공부하고 돌아가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카쿠 카즈오 씨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교회는 일년에 몇번 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이혼한 전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있고 어머니는 대만안으로 치매로 요양시설에 있어요.) 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시모히가시 집사님과  
우시고메 자매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은 아무리 해도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나고야 자매의 간증은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눈의 이상을 관촬했거니하고 방치해서 실명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에 너무 낙심했지만 이사가 46장 3절 4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간증이었어요. 은혜의 간증뒤에 제가 준비한 커피젤리와 컵케이크를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은)나고야 자매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하는 사역중에는 교회모임 때마다 디저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남편이 코베 개척파 신학교에 있을 때 일본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목사부인이 교회모임에 이런 디저트를 내면 교회에 활기가 생긴다고 하여 연습에 연습을 했어요.

다들 기뻐해 주시고 저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달만 늦었어도 바로 실명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 전문가를 모셔와서 7월 7일에 수술할 수 밖에 없다고 해요.

부디 부디 나고야 자매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